

Market Issues

투자전략/자산배분

트럼프 관세와 주가 급락, 대응 전략



Summary

미국 증시 급락, 비관적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됨

- 관세 인상, 미중 갈등 지속이 리세션 우려 자극하면서 미국 증시 급락. 하지만, 제반 여건상 리세션 가능성 아직 낮음.
- 주가는 리세션 프라이싱 직전 단계까지 조정 받았지만, 연준 풋, 관세 협상 등 향후 시나리오 다양. 미국 주식에 대해 너무 비관적으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됨.

달러 약세, 미국 외로 분산 투자

- 최근 금융시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증시 급락, 안전선호 급상승에도 달러가 그리 강하지 않다는 것. 달러 인덱스는 연초 이후 약 5% 하락한 상황.
- 달러가 안전자산으로서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동반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 판단됨.
- 또한, 미국 외에서 경기 부양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 ECB는 6 연속 금리인하 단행, 독일은 헌법 개정을 통해 재정 확장에 나섰고, 무엇보다 중국은 올해 양회에서 전방위적 내수 확대를 정책 최우선 순위로 끌어 올림.
- 미국 주식에 비관적이지 않지만 불확실성도 커진 것은 사실. 미국 외로 분산 투자에 좀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음. 특히, 중국 주식 비중확대 의견이며, BYD, 샤오미, 차이나 항셱테크 등 탑픽 종목 및 ETF로 제시(12페이지에 글로벌 주식 탑픽 정리)

주식 외 투자 옵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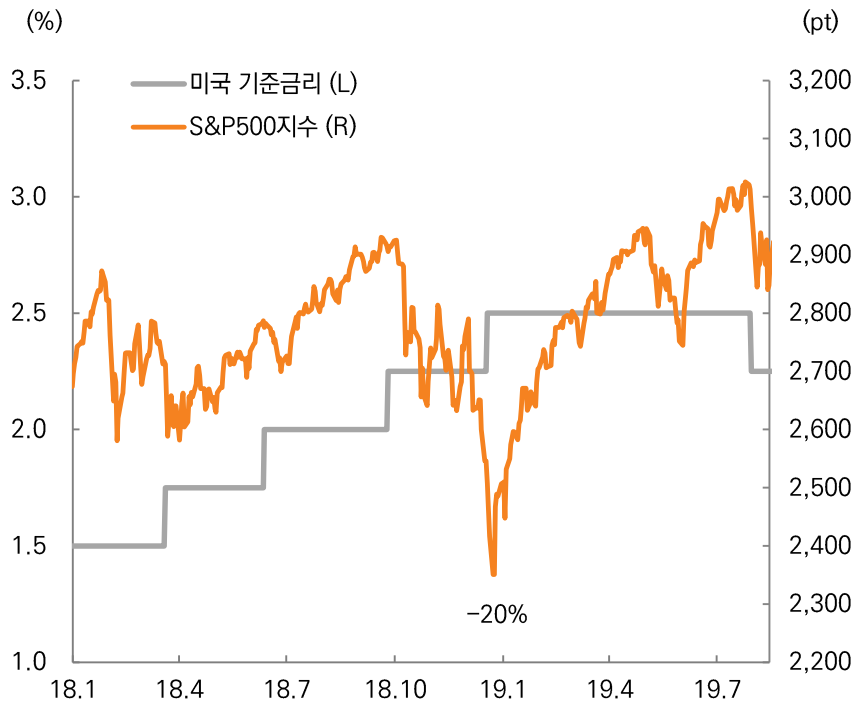
- 금은 중장기 선호 관점이며, 최근에는 엔화와 더불어 단기 시장 리스크 헤지 목적으로도 보유 가치 증가.
- 엔화는 미국 증시가 더 흔들린다면 안전자산으로서 강세가 더 심화될 수 있음.
- 한국채도 계속해서 긍정 관점이며,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해 한국은행 금리인하가 좀더 앞당겨지고 좀더 많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음.

미국 증시 급락, 리세션 프라이싱 직전 단계

S&P500 지수 2018년 조정 강도에 근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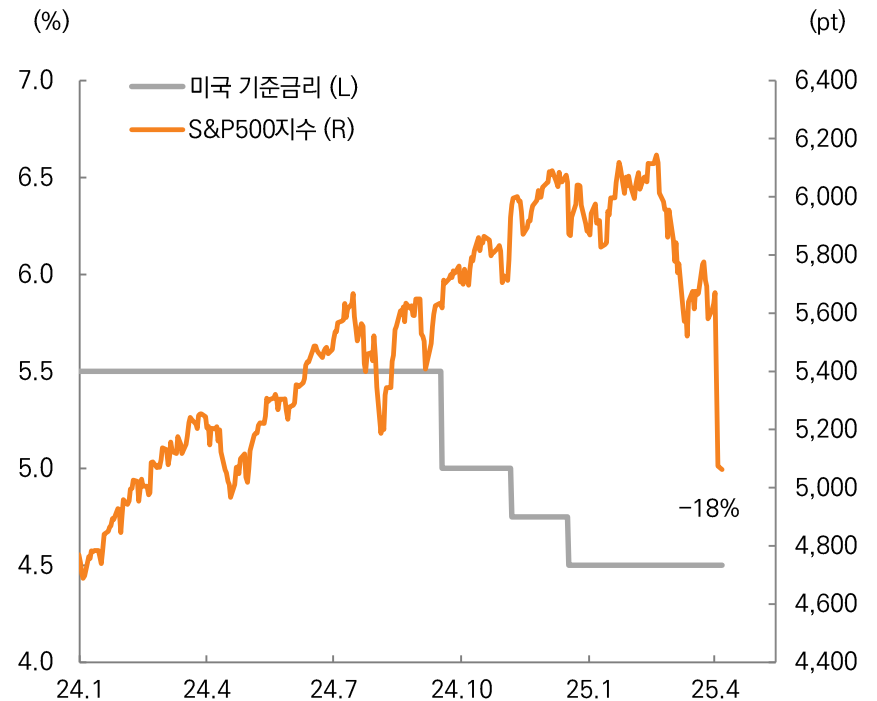
- 트럼프 관세인상 현실화에 따른 주가 급락세. 지금이 2018년과 다른 점은 전방위적인 관세인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 하지만, 이번에도 미중 관계가 핵심. 중국의 34% 보복 관세가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 급락세.
- 아직 중국이 양보할 생각은 없어 보임. 미중 양국의 추가 관세 인상으로 글로벌 증시 긴장감,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음.
- 다만, 2019년 연준 풋 기대감이 주가 반등을 이끌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비슷할 수 있음.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도 아직은 낮은 수준.

2018년 관세 인상과 연준 금리인상에 주가 급락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이번 국면은 관세 인상과 연준 금리인하 중단에 주가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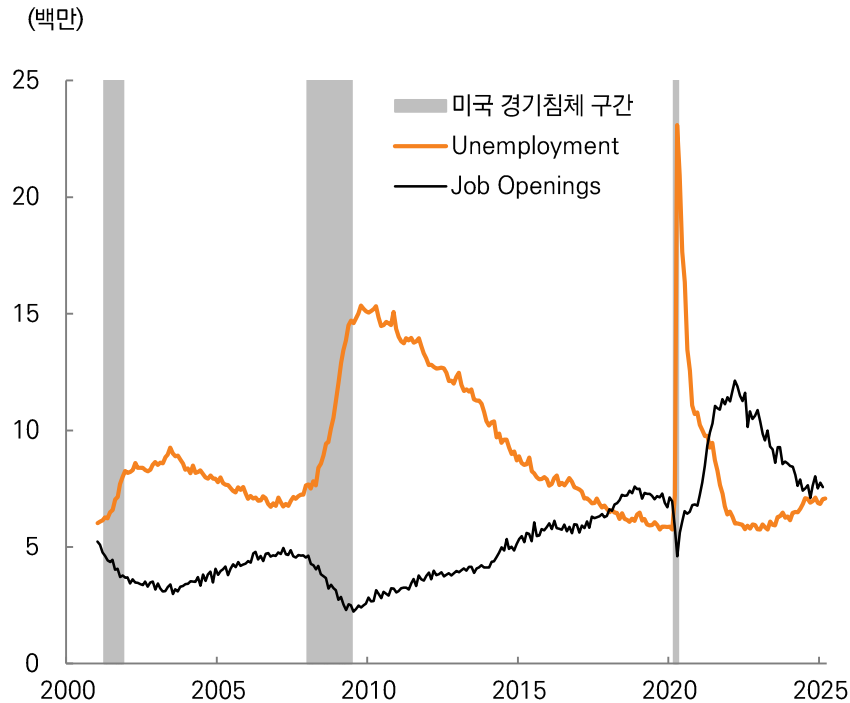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리세션 가능성 아직 낮은 수준

실질 임금이 빠르게 감소할 상황 아님 → 소비 감소 상황 아니라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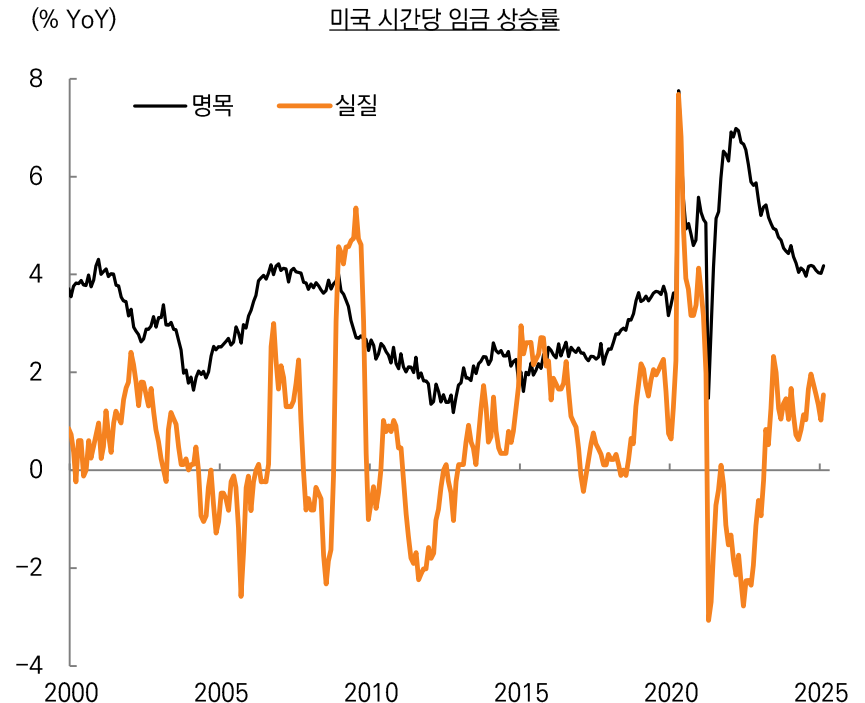
- 미국 잡마켓은 여전히 실업자보다 구인건수가 더 많은 상황. 구직자들의 가격(임금) 협상력이 그리 낮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
-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가 올라서 구매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지금은 기대 인플레이를 임금에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을 것.
- 따라서, 실질 임금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실질 소비도 감소하지 않는 상황 기대 → 리세션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다고 판단됨.

여전히 타이트한 잡마켓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실질 임금 전년비 1~2% 수준에서 증가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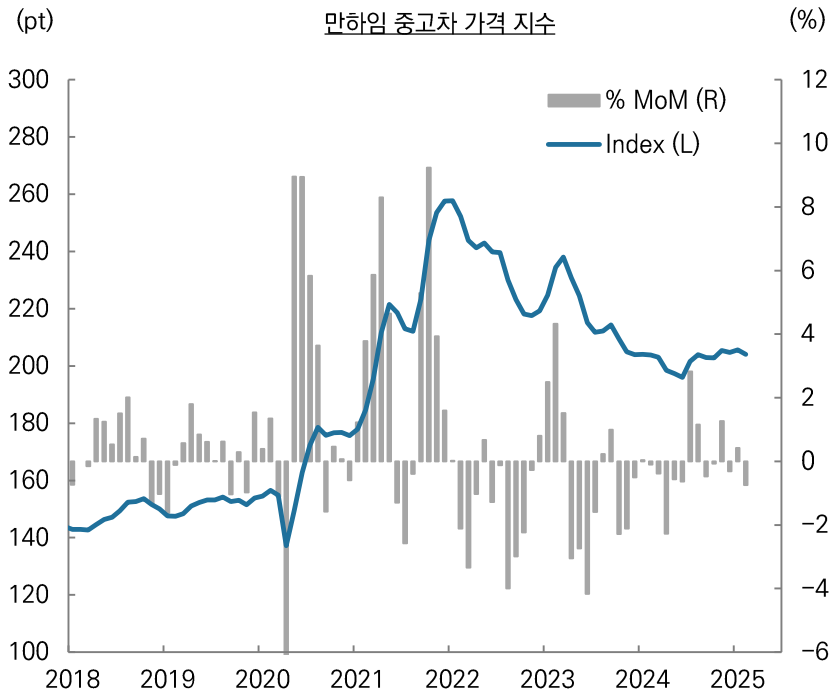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디스인플레이션 경로, 아직 유효

불확실성은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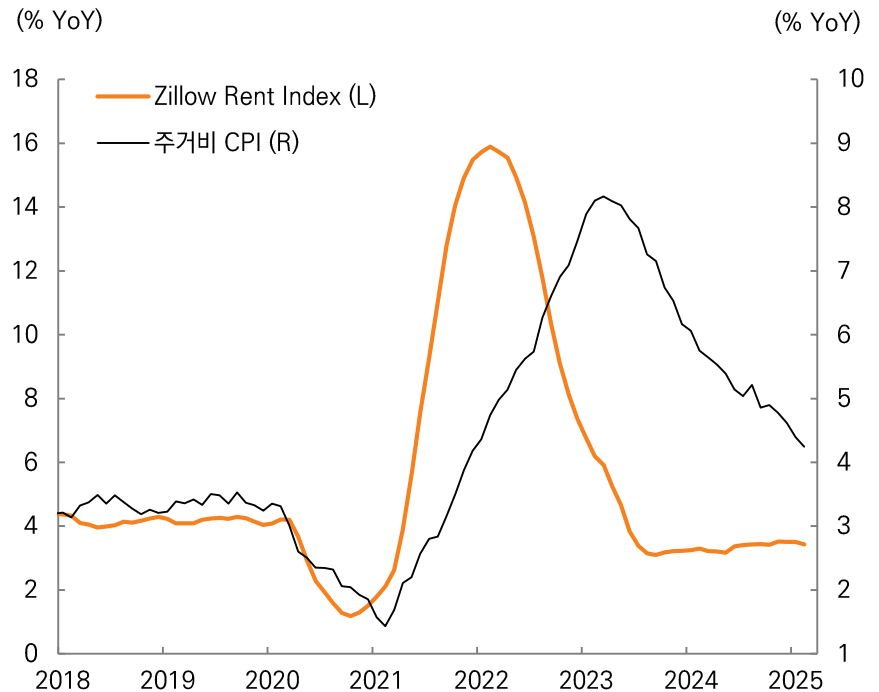
- 미국 주거비 제외 코어 인플레이션은 전년대비 2%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주거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아직 높지만, 임대료 시장가격은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 상승률로 안착한 상황임.
- 최근 관세 우려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등했지만, 가솔린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기대 인플레이션 추가 상승을 제한할 수 있을 것.
- 자동차 관세인상 이후 중고차 가격이 잘 지켜보아야 할 변수에 해당.

중고차 값 안정적 추세 유지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부동산 임대료 상승률은 팬데믹 이전 상승률로 돌아온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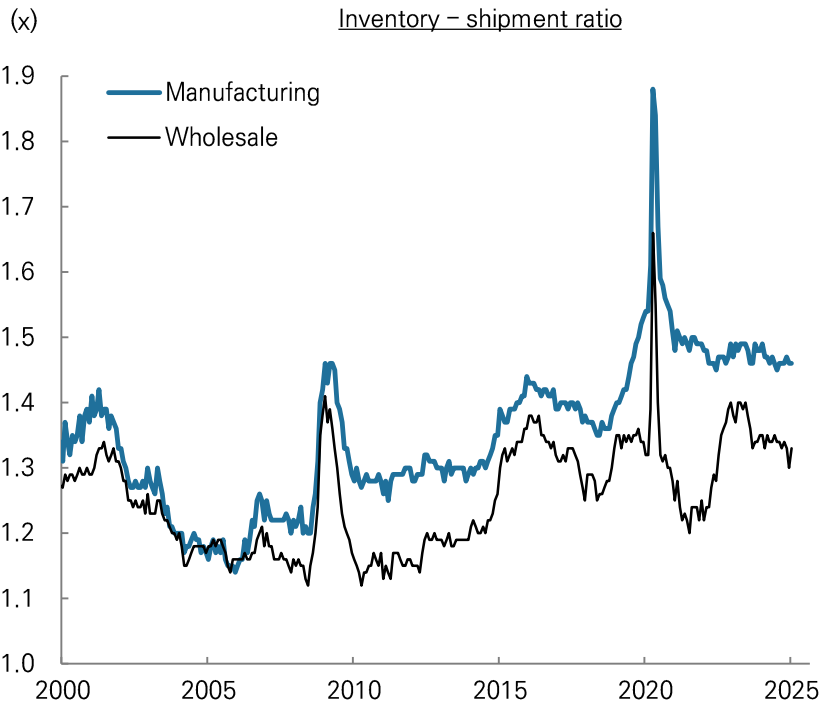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인플레이 재상승 우려? 재고 활용 여지 있음

재고 활용으로 한동안 시간을 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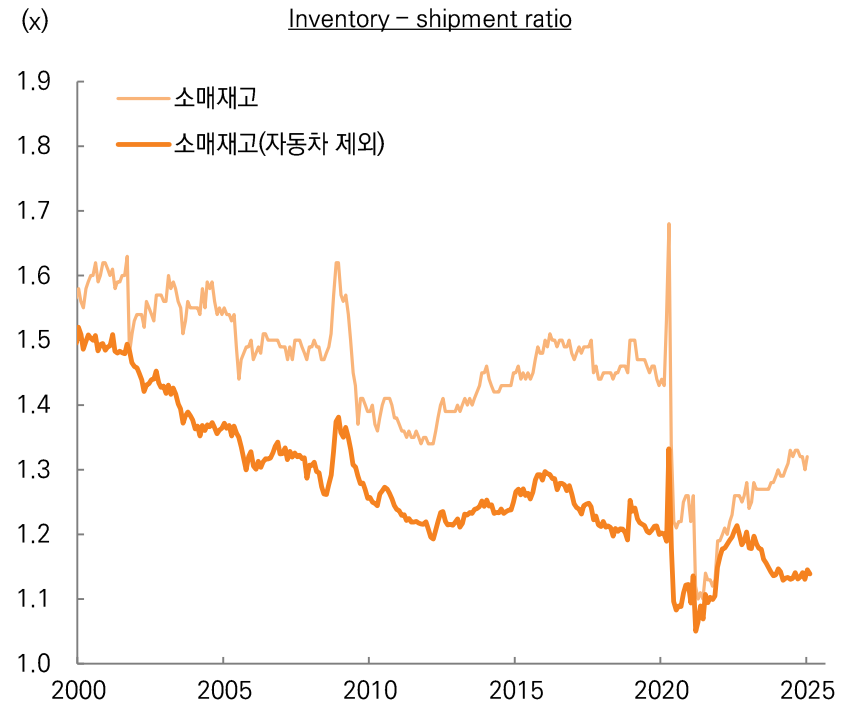
- 현대차 미국 신차 가격 2개월간 인상 없을 것이라 발표. 관세 인상 전 미리 확보해 둔 재고로 한동안 버티겠다는 것으로, 이런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미국 전반적인 재고 현황을 보면, 소매업 재고율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제조업과 도매업 재고율은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 미국 정부는 USMCA 내에서는 관세인상을 서두르지 않으면서 특히 소비재 인플레이가 자극되지 않게끔 계속 신경 쓸 것으로 보임.

제조업 및 도매업 재고율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소매재고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 자동차 제외하면 더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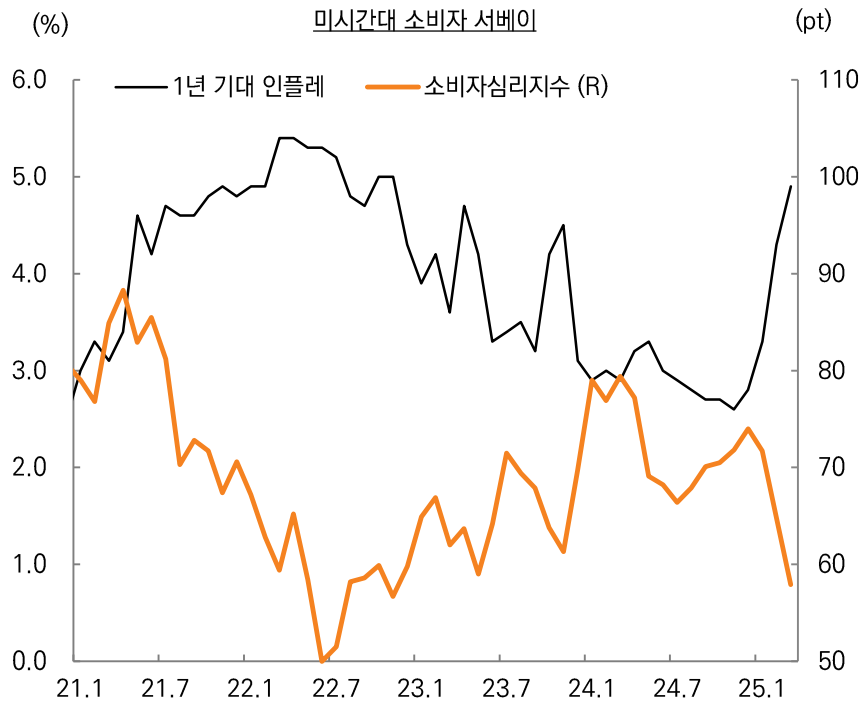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Fed put 기대감 상승

리세션 우려 커지면 금리인하 기대도 더 커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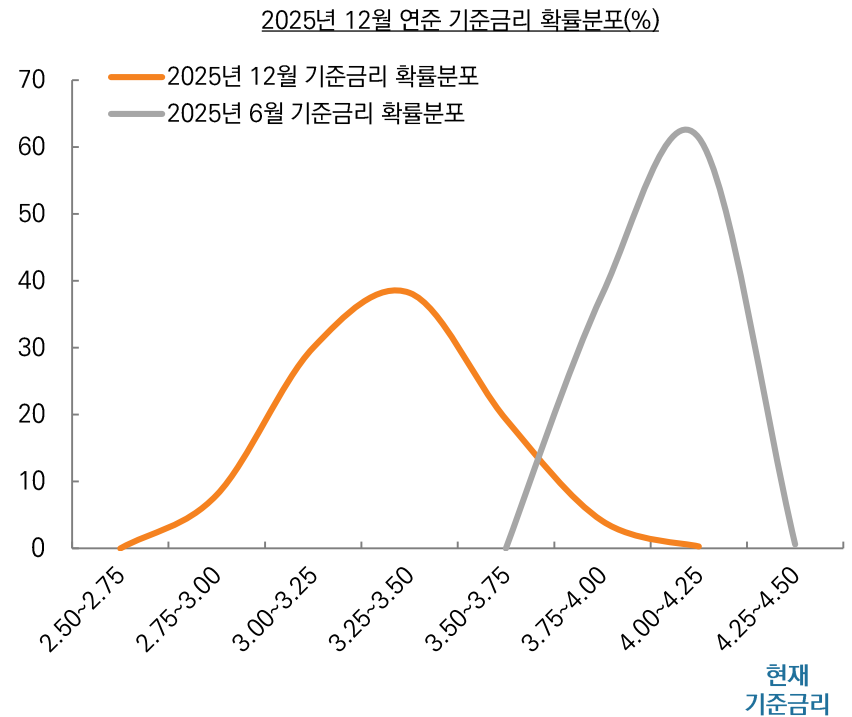
- 연준은 관세 불확실성과 최근 기대 인플레이 급등으로 금리인하에 다소 소극적인 스탠스를 보임.
- 하지만, 시장에서는 관세발 경기침체 우려, 주가 급락에 금리인하 기대를 빠르게 높이고 있음.
- 앞서 정리한 대로 실제 인플레이가 관세 인상 이후에 크게 자극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면, 연준은 6월부터 금리인하 단행 가능해 보임.
- 2019년에 그랬던 것처럼 연준 풋 기대감이 증시 반등의 핵심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미시간대 소비자 서베이 결과: 소비심리 위축, 기대 인플레이 급상승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연준 기준금리 확률분포: 연내 4회 인하로 기대치 급증



자료: CM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 한국시간 4월 8일 오전 7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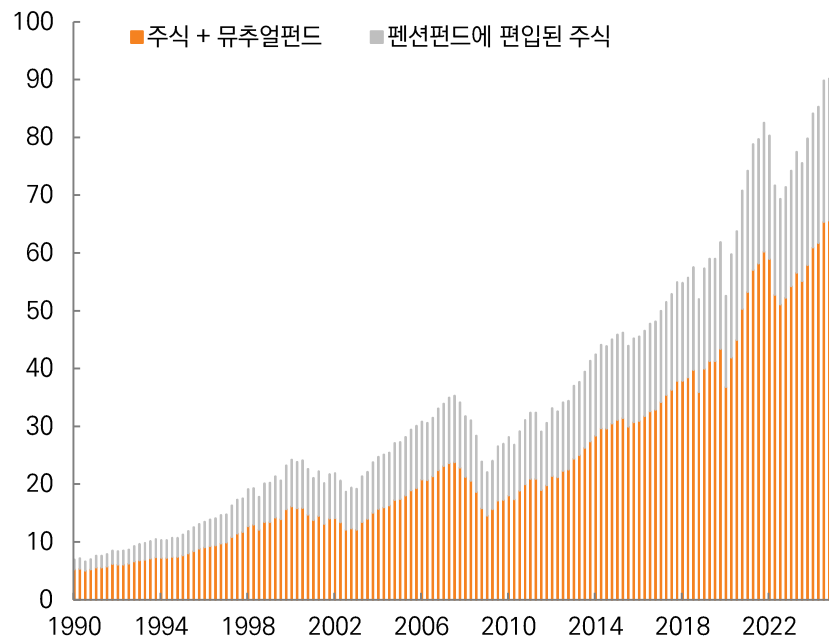
Trump put 가능성도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것

미국 주가 급락은 지지율 급락 요인 소지 → 트럼프 대통령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

- 주가 가치가 지난 몇년간 계속 증가해서, 미국 가계 금융자산의 약 50%가 주식이었던 상황(지난해 12월말 기준).
- 관세 인상, 동맹국에 대한 적대적 스탠스 등이 확인되면서 트럼프에 대한 반대 여론이 지속 증가해 왔음.
- 최근 주가 급락은 이런 기조를 강화 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아직까지 견고한 지지율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음.
- 결국은 증시를 안정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

미국 가계의 주식 보유액 약 90조 달러(가계 금융자산의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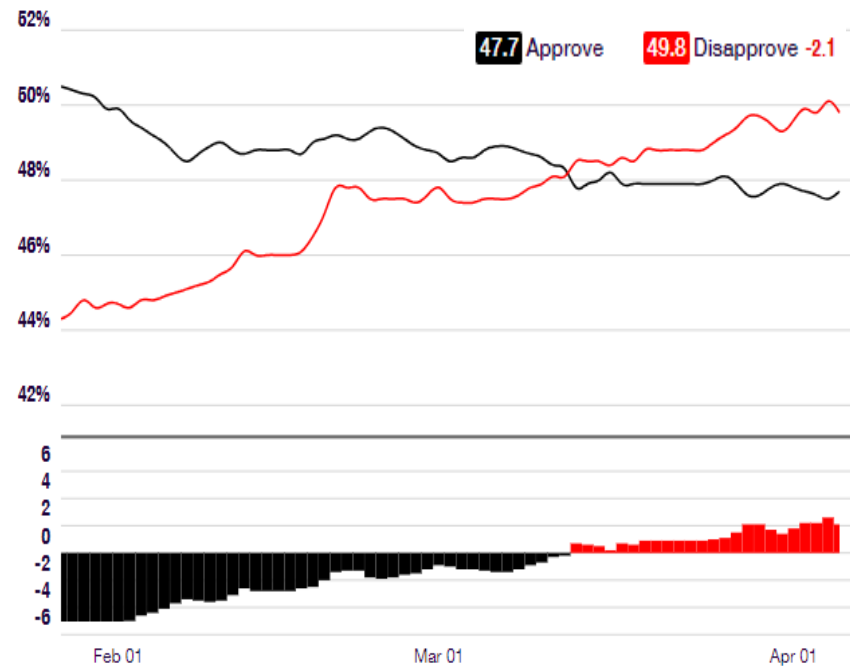
(조 달러)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반 트럼프 여론 증가(4월 4일 기준)

President Trump Job Appro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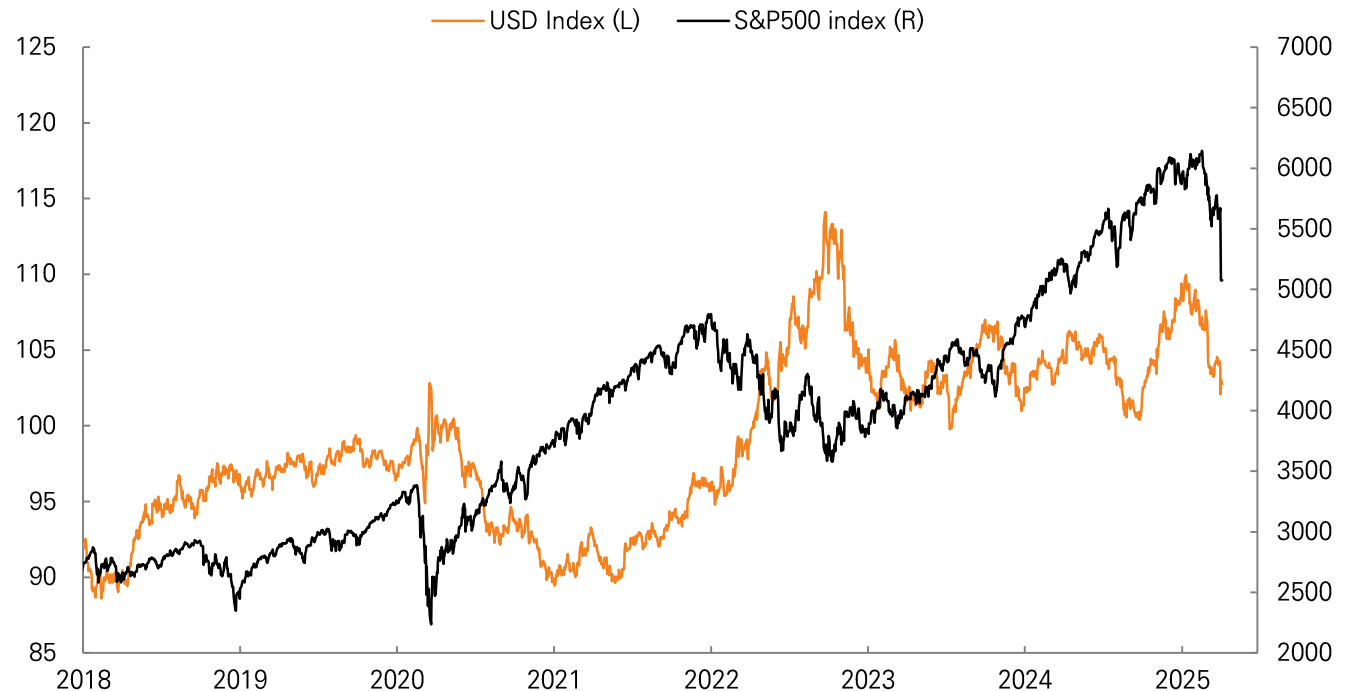
자료: Real Clear Politics,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과거와는 다른 머니무브

미국 외로 분산 투자가 중요한 시점

- 2018~19년에는 무역 분쟁 속 달러 강세. 하지만, 지금은 주가 급락, 안전 선호 심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점이 특징적.
- 이는 미국 자산에 대한 불안감 상승, 신뢰 저하와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통상적으로 달러 약세 국면에는 미국 자산 가치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약함 → 미국 외로 분산 투자.

일반적으로 달러와 미국 주가는 반대로 가는 경향을 보이나, 이번에는 미국 주가 급락에 달러도 동반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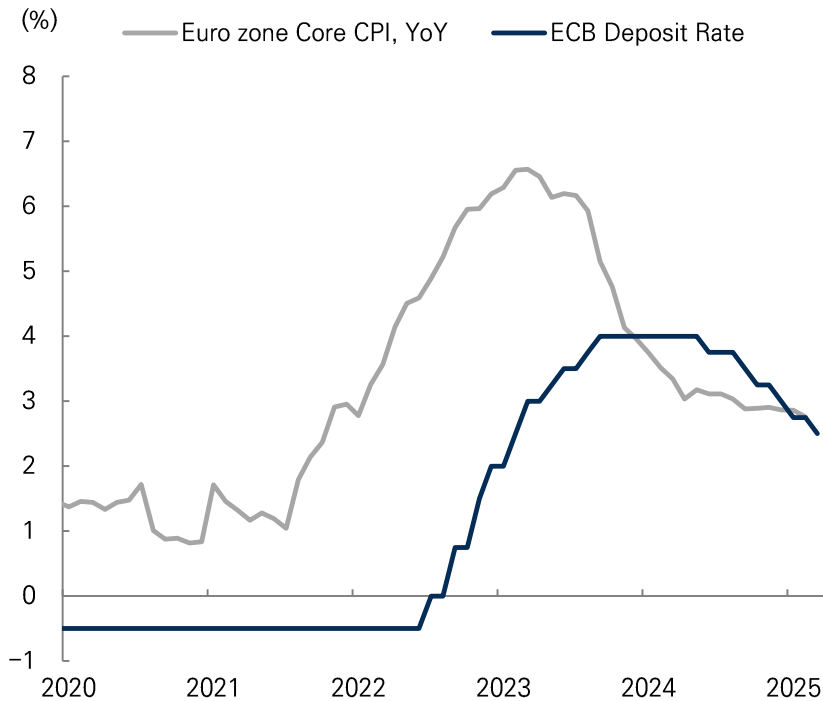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외 내수 부양 노력 강화

중국, 유럽 등 내수 회복 기대

- 유럽에서는 ECB에서 여섯 차례 연속 금리인하를 단행했고 독일에서는 헌법까지 개정함으로써 재정 확장 시도.
- 중국에서는 올해 양회에서 전방위적 내수 확대를 정책 최우선 순위로 끌어 올렸음. 더불어, '선부'가 '공동부유'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정책 기조는 이들 자산의 투자 가치에 긍정적. 미국에서 미국 외로 머니무브를 견인하는 요인.

ECB 적극적 금리인하로 마이너스 실질 금리 상황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양회에서 확인된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

2024년	2025년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	전방위적 내수 확대
과학기술 진흥 전략 심화 고품질 발전 기반 강화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 가속화
내수 확대	과학기술 진흥 전략 심화, 국가혁신체계 효율 제고
심화 개혁	심화 개혁 가속
대외 개방	대외 개방
리스크의 효과적 방지	시스템 리스크 절대 방지
농촌 발전 촉진	농촌 발전 추진
도농 융합	신형 도시화
생태환경 보호, 저탄소 발전	탄소절감, 녹색 성장
민생보장	민생보장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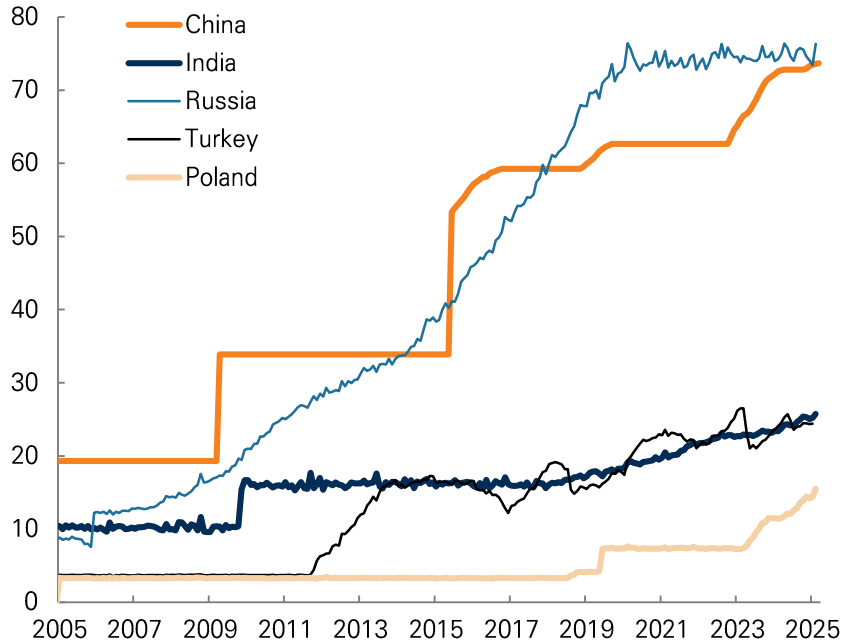
Gold & JPY & KTB

리스크 헤지를 위한 옵션들

-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높아진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 리스크 헤지 옵션으로 금 엔화 등이 대표적.
- 미국 주식이 더 흔들리면 엔화는 더 강세로 갈 수 있고, 상호간 상승 작용을 일으킬 위험 존재.
- 금에 대해서는 단기적 시장 위험 대비 목적도 있지만, 원래부터 중장기 긍정 관점 제시 중. 탈 달러 반사 수혜 & 연준 금리인하 재개.
- 한국채도 선호 유지. 한국은행 금리인하는 당초 기대보다 앞당겨지고 더 많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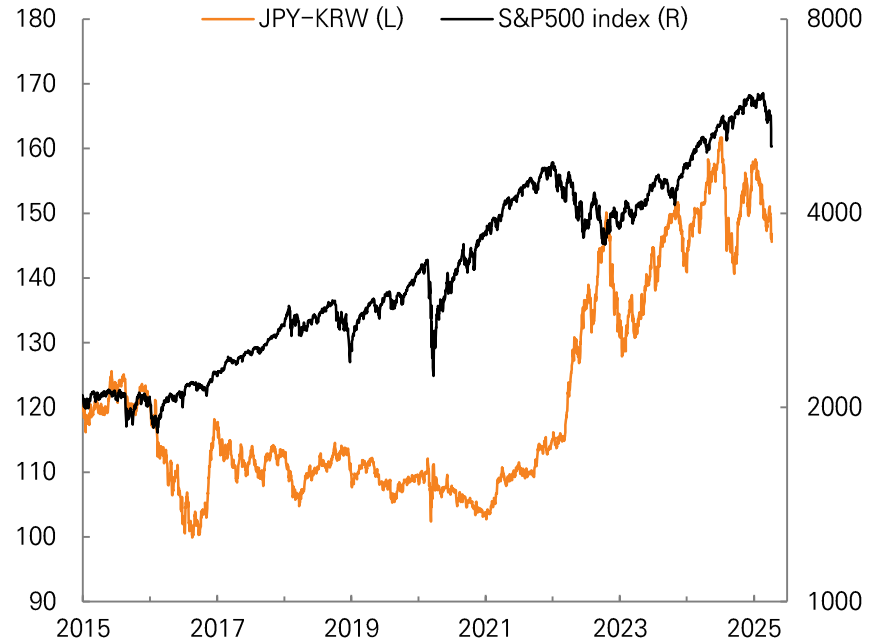
주요 신흥국 외환보유액에서 금 보유량 지속 확대

주요국 외환보유액 중 금 보유량 (troy oz mn)



자료: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증시 약세는 일반적으로 엔화 강세 동반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주식(+ETF) Top Picks

티커	국가/ ETF	기업명/ETF명	AUM (USDmn)	PER (x)	PBR (x)	수익률 (%)			투자포인트
						1M	3M	YTD	
002594	중국	BYD	129,458	16.7	5.5	3.7	32.1	26.5	미국 노출도가 없고, 중국 판매가 여전히 견고하기에 미국의 자동차/부품 관세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움
1810	홍콩	샤오미	122,428	23.1	4.5	-9.2	26.6	33.0	대부분의 매출이 중국 및 이머징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고 기술 격차 축소로 중국 기업 점유율 높아지는 국면
NVDA	미국	엔비디아	2,301,164	19.7	29.1	-18.7	-34.7	-29.8	단기적으로 매크로 불확실성은 지속되겠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되면 중장기 성장 스토리 유효
CRWD	미국	클라우드스트라이크	79,724	88.7	24.3	-17.6	-10.4	-6.0	DeepSeek 등으로 AI의 보안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가별로 사이버보안에 대한 니즈 확대
NEE	미국	넥스트에라 에너지	137,740	17.9	2.7	-5.6	-7.1	-6.7	미국 전체 신재생 용량 대비 20%를 보유. 미국 최대 가스발전 운영사 보유로 트럼프 시대에도 수혜 기대
SOXX	반도체	iShares Semiconductor ETF	9,229	36.7	3.4	-22.1	-29.1	-26.9	AI 투자에 힘입어 성장세 지속. 트럼프도 핵심 기술인 AI 반도체를 보호하려는 경향
PAVE	인프라	Global X US Infrastructure Development ETF	6,934	22.7	3.0	-10.1	-15.7	-14.9	트럼프 제조업 육성 정책 수혜. 우크라이나 전 휴전시에도 인프라 관련 기업들 필수적
IHI	의료기기	iShares US Medical Devices ETF	4,197	42.1	4.2	-12.9	-7.0	-5.7	미국의 헬스케어 지출 확대에 따라 의료 기기수요도 자연스럽게 확대. 수술 로봇 수요도 구조적으로 증가
AIQ	AI 테크	Global X Artificial Intelligence & Technology ETF	2,537	30.2	4.1	-15.4	-17.2	-16.1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 공급. 트럼프 행정부도 SMR 기술과 미국내 우라늄 채굴 증진 정책 선호
SHLD	방산	Global X Defense Tech ETF	1,206	30.1	4.7	-4.1	15.5	16.7	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국방비 압박 강화, 유럽 국가들의 방산 투자 증진
2837	항생테크	Global X Hang Seng TECH ETF	264	30.1	3.0	-4.1	21.2	18.6	중국 정부가 2020년 말부터 보인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가 완화 기조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 확대
RTH	저가소비 (신규)	VanEck Retail ETF	219	26.7	6.4	-6.9	-5.3	-4.6	관세 정책으로 위축된 소비 심리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 아마존, 월마트 밸류에이션 부담도 완화

주1: 4월 4일 기준. AUM 순으로 정렬/ 주2: 밸류에이션 데이터는 개별주식은 12MF PER/PBR, ETF는 펀드 평균 PER/PBR로 구성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견고한 펀더멘탈에 주목

투자의견(유지)	매수
목표주가(유지)	CNY 500
현재주가(25/4/4)	CNY 357.51
상승여력	39.9%
국가	중국

선전 종합(p)	1,992.39
EPS 성장률(25F,%)	48.4
P/E(25F,x)	17.4
배당수익률(%)	1.6
시가총액(십억CNY)	647.55
시가총액(조원)	130.44
상장주식수(백만주)	1,811.3
60일 평균 거래대금(백만CNY)	5,337.36
52주 최저가(CNY)	205.04
52주 최고가(CNY)	399.99

주가상승률 (%)	1M	6M	12M
절대주가	-0.7	16.3	71.7
상대주가	1.2	12.5	52.4

[자동차/부품] 김진석
jinsuk.kim@miraeeasset.com

투자포인트

- 미국의 자동차/부품 관세 25% 부과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 변동성 확대된 상황. 동사는 미국 노출도가 없고, 중국에서의 판매는 여전히 견조함. 3월 동사 NEV 승용차 도매판매는 37.1만대(+23%YoY, +17%MoM). 1Q 누적 기준 98.6만대(+59%YoY). 중국 NEV 산업 소매판매도 1Q 누적 +37%YoY로 견조한 수요 지속. 중국 NEV 침투율은 24년 48% → 25년 56%로 상승하며 기타 주요국과의 차별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1) 중국에서 지속될 판매 확대와 견고한 ASP: 동사가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20만위안 미만 시장의 NEV 침투 잠재력이 높은 가운데, 대중 자율주행 시스템 ‘신의 눈’은 판매 확대에 기여할 전망. 3월 동사는 Yuan Plus, Denza N9, Han/Tang/Qin L EV, Sealion 05, 양왕 U7 등 신차 출시. 30만위안 이상 프리미엄 브랜드의 내수 판매 비중은 23년 5% → 26년 10% 상승하며 ASP 지지 예상. 2) 해외 시장이 이끌어갈 판매량과 ASP 성장: 해외판매는 23년 24만대 → 26년 87만대로 CAGR +53% 예상. 해외판매 비중 24년 11% → 26년 14%로 상승 예상. 신흥국에서의 높은 전기차 잠재력, 2) 유럽 탄소배출 규제 완화, 현지 가격경쟁력, 유증 자금 해외사업 확장에 주목

실적전망 및 밸류에이션

- 매출액/EPS의 23-26F CAGR +25%/+32% 전망. NEV 판매량은 +28%, 내수 +26%, 해외 +53%. 목표주가는 500위안 유지. 25F EPS 20.5위안에 Target P/E 24.4배 적용. 중국 피어그룹 25년 P/E 평균에 18% 할증



계산기 (12월)	2022	2023	2024F	2025F	2026F
매출액 (억CNY)	4,241	6,023	7,713	10,225	11,907
영업이익 (억CNY)	215	381	482	726	845
영업이익률 (%)	5.1	6.3	6.2	7.1	7.1
순이익 (억CNY)	166	300	390	597	696
EPS (CNY)	5.72	10.34	13.42	20.51	23.92
ROE (%)	16.1	24.0	30.7	40.6	32.9
P/E (배)	45.0	19.2	21.1	17.4	14.9
P/B (배)	6.6	4.1	7.0	5.8	4.2

주: GAAP / Non-GAAP
자료: 비아디,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샤오미 (1810 HK)

변하지 않는 경쟁력

투자의견(유지)	매수
목표주가(유지)	HKD 72
현재주가(25/4/4)	HKD 45.90
상승여력	56.9%
국가	홍콩

항행 종합(p)	22,849.81		
EPS 성장률(25F, %)	48.3		
P/E(25F, x)	31.3		
배당수익률(%)	-		
시가총액(십억HKD)	1,189.59		
시가총액(조원)	224.32		
상장주식수(백만주)	25,917.0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HKD)	14.08		
52주 최저가(HKD)	15.50		
52주 최고가(HKD)	58.20		
주가상승률 (%)	1M	6M	12M
절대주가	-9.9	90.9	195.0
상대주가	-9.3	84.7	115.9

[글로벌 AI] 박연주
yeonju.park@miraeasset.com

투자포인트

- 샤오미는 높은 가성비와 매력적인 디자인,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기반으로 스마트폰, IoT 및 생활 가전, 전기차 등 주요 사업 분야에서 점유율 상승 중: 선진국 업체와 이머징 업체간 기술 격차가 줄어들면서 가성비와 민첩한 대응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의 점유율이 구조적으로 높아지는 국면
- 샤오미는 경쟁력 있는 공급 업체를 발굴해 동반 성장하는 ‘샤오미 생태계’ 전략, 팬덤인 ‘미핀’을 활용한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 집중적으로 개발해 온 소프트웨어 기술력 등으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 확보
- 최근 주가는 유상 증자 및 전기차 사고, 미중 관세 전쟁에 따른 매크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조정: 그러나 대부분의 매출이 중국 및 이머징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고 전기차 역시 향후 1~2년간은 중국 내수 시장에서 주로 성장할 전망. 자율주행 기술 측면에서는 후발 주자이나 빠르게 투자를 늘리고 있고 기술의 상향 평준화가 진행되고 있어 중기적으로 경쟁력 확보 전망

Risk 요인

- 관세 전쟁 심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결산기 (12월)	2023	2024	2025F	2026F	2027F
매출액 (십억CNY)	271.0	365.9	527.0	699.7	754.0
영업이익 (십억CNY)	16.3	21.9	37.4	57.4	64.5
영업이익률 (%)	6.0	6.0	7.1	8.2	8.6
순이익 (십억CNY)	17.5	23.6	35.0	51.5	57.5
EPS (CNY)	0.7	0.9	1.4	2.0	2.3
ROE (%)	10.7	12.5	18.4	21.3	19.2
P/E (배)	96.7	20.3	31.3	21.2	19.0
P/B (배)	1.7	2.2	5.8	4.5	3.7

주: GAAP / Non-GAAP
자료: 샤오미,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단기 매크로 불확실성 확대,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유효

투자의견(유지)	매수
목표주가(유지)	USD 151
현재주가(25/4/4)	USD 94.31
상승여력	60.1%
국가	미국

나스닥 종합(p)	15,587.79
EPS 성장률(25F, %)	144.0
P/E(25F, x)	40.8
배당수익률(%)	0.0
시가총액(십억USD)	2,297.09
시가총액(조원)	3,375.81
상장주식수(백만주)	24,400.0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USD)	34.87
52주 최저가(USD)	76.20
52주 최고가(USD)	149.43

주가상승률 (%)	1M	6M	12M
절대주가	-18.7	-24.5	9.8
상대주가	-4.6	-12.2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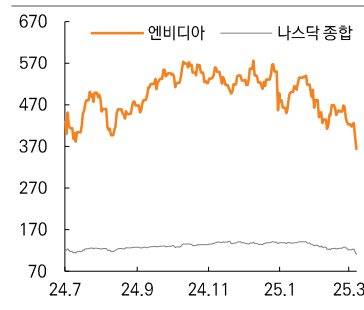
[반도체] 김영건
younggun.kim.b@miraeeasset.com

투자포인트

- Blackwell의 수요 강세로 외형 성장이 지속될 것은 가시성 높은 요인이거나, GPM이 70% 중반대로 안정화되는 시점은 2개 분기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더해 동사 제품의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비용 측면 등에서 美 정부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
- 단기적 매크로 불확실성 관련 여파는 불가피하나,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작금과 같은 시기에 美 정부가 빅테크 업체들이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 규모를 축소하도록 방치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판단.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AI 산업 발달이 진전됨에 따라 HW/SW를 아우르는 동사 비즈니스 모델이 재부각될 것

실적전망 및 밸류에이션

- 동사의 12MF P/E는 19.6x로 2020년대 들어 최저 수준. 이는 기업 펀더멘털의 영향보다 기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 지속 가능성 우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매크로 불확실성 등에 기인
- 일각에서는 국가간 관세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 규모 축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단순 우려에 그침. 매크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 규모가 축소되지 않을 경우, 이는 역설적으로 동사에 대한 시장의 투심 전환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상존. 4/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 및 방향성(유예기간 부여, 강경 집행 여부 등) 확인 후 점진적인 매집 전략 유효 판단



결산기 (01월)	2022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억USD)	269	270	609	1,305	1,772
영업이익 (억USD)	100	42	330	815	1,067
영업이익률 (%)	37.2	15.6	54.2	62.5	60.2
순이익 (억USD)	98	44	298	720	940
EPS (USD)	0.39	0.18	1.21	2.94	3.84
ROE (%)	44.8	17.9	91.5	110.7	70.1
P/E (배)	62.7	111.2	51.0	40.8	24.6
P/B (배)	23.1	21.8	35.3	33.7	12.8

주: GAAP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자료: 엔비디아, 미라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클라우드스트라이크 (CRWD US)

방어주 사이버보안의 대표

투자의견(유지)	매수
목표주가(유지)	USD 448
현재주가(25/4/4)	USD 321.63
상승여력	39.3%
국가	미국

나스닥 종합 (p)	15,587.79
EPS 성장률 (25F,%)	-
P/E(25F,x)	-
배당수익률(%)	-

시가총액 (십억USD)	79.72
상장주식수 (백만주)	247.9
60일 평균 거래대금(백만USD)	1,562.81
52주 최저가 (USD)	217.89
52주 최고가 (USD)	45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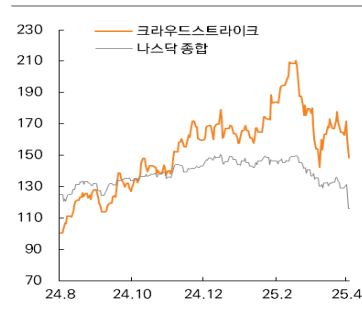
주가상승률 (%)	1M	6M	12M
절대주가	-17.6	10.1	4.0
상대주가	-3.3	28.1	7.1

투자포인트

- DeepSeek 등으로 AI의 보안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AI 시대에 국가별로 보안 시스템 강화해야 하는 니즈 더욱 강력해짐 → 사이버보안은 디지털화 시대에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 AI 시대에 맞춰 신제품 수요 강력하게 나타나는 중: ID 보안, 클라우드 보안(ARR +45% YoY), 차세대 SIEM(ARR +115% YoY) 등 성장세 강력하여 플랫폼 제품 'Falcon Flex' 성과 확대 예상
- 24년 7월 발생한 블루스크린 사태에 대한 보상을 위해 CCP plan (① 무료로 추가 제품 제공, ② 결제 시점 유연화, ③ 계약 기간 연장 등)이란 보상 프로그램을 제공했는데, 25년 3월 종료 → 이에 따라 실적이 다시 기존 수준으로 회복하며 성장률 반등 가능할 것으로 전망

실적 및 밸류에이션

- FY2025(24.2~25.1) 매출 39.5억달러(+29.4% YoY), Non-GAAP EPS 3.93달러(+27.6% YoY)로 성장을 이어갔으나, 블루스크린 사태로 예상을 뛰어넘지는 못함. 그러나 net ARR(연간 반복 매출)이 가장 최근 실적부터 +46.4% QoQ 반등하기 시작해 FY26에는 성장 기대감 확대
- 현재 FY1 PSR 18배로 5년 평균치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 나스닥 IT SW 섹터에서 상대적으로 방어주 + 안정적 펀더멘털 감안했을 때, 중장기로 안전한 투자처로 판단



결산기 (1월)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십억USD)	1.45	2.24	3.06	3.95	4.75
영업이익 (십억USD)	0.20	0.36	0.66	0.84	1.03
영업이익률 (%)	13.51	15.87	21.53	21.19	21.76
순이익 (십억USD)	0.16	0.36	0.75	0.17	1.06
EPS (USD)	0.68	1.54	3.08	0.68	4.18
ROE (%)	15.7	24.6	32.4	13.2	62.0
P/E (배)	472.99	208.85	104.43	472.99	76.87
P/B (배)	284.85	204.92	133.24	249.17	190.49

주: Non-GAAP

자료: 클라우드스트라이크,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소프트웨어/통신서비스] 김수진
soojin.kim@miraeeasset.com

넥스트에라 에너지 (NEE US)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위력

투자의견(유지)	매수
목표주가(유지)	USD 103
현재주가(25/4/4)	USD 66.91
상승여력	53.9%
국가	미국

S&P 500(p)	5,074.08		
EPS 성장률(25F,%)	8.7		
P/E(25F,x)	18.2		
배당수익률(%)	2.9		
시가총액(십억USD)	1,377.40		
시가총액(조원)	198.25		
상장주식수(백만주)	2,058.6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USD)	858.63		
52주 최저가(USD)	61.70		
52주 최고가(USD)	85.43		
주가상승률 (%)	1M	6M	12M
절대주가	-4.4	-20.2	4.3
상대주가	8.7	-10.4	6.9

[운송플랫폼] 류제현
jay.ryu@miraeasset.com

투자 포인트: 대형 고객에 대응할 수 있는 북미 최대의 친환경 솔루션 제공업체

- 미국 최대 신재생 전력 사업자: 전체 발전용량 대비 20%
- 트럼프 시대에도 수혜: 미국 최대 가스발전 운영사 FPL을 운영
- GE Vernova(GEV)와 함께 새로운 협력(Framework Agreement)을 발표
- 기존 원전 재가동(Duane Arnold)을 준비 중: 비탄소전원 포트폴리오 다변화

투자의견 및 Valuation

- 목표주가 103달러 및 매수 의견을 유지
- 2026년 까지 약 10%의 배당 성장 지속 전망
- 12MF 조정 P/E 18배로 동종업종 대비 할증 수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

리스크 요인

- 관세 부과에 따른 태양광/풍력 등 주요 부품 단가 상승: 재생에너지 설치량 증가율 둔화



결산기 (12월)	2022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백만USD)	20,956	28,115	24,752	26,639	29,431
영업이익(백만USD)	4,080	10,237	7,480	8,586	10,895
영업이익률 (%)	19.5	36.4	30.2	32.2	37.0
순이익(백만USD)	4,147	7,310	6,945	5,217	5,672
EPS (USD)	2.1	3.6	3.4	2.5	2.7
ROE (%)	10.9	16.9	14.2	10.7	11.9
P/E (배)	40.2	17.1	21.2	28.2	26.0
P/B (배)	5.7	3.5	3.7	4.2	4.2

주: GAAP / Non-GAAP
자료: 넥스트에라 에너지,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